

KLPGA 챔피언들 해남서 샷대결

24~25일 파인비치 왕중왕전...김하늘·김자영 등 올 시즌 우승자 충출동

2012 시즌 한국여자골프(KLPGA) 투어 챔피언들이 24일과 25일 해남에서 샷 대결을 벌인다.

이벤트 대회로 열리는 한양수자인·솔라 시도 2012 한국여자프로골프 왕중왕전은 총 상금 1억2000만원을 걸고 파인비치 골프 링크스(파72·6288야드)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왕중왕전 우승자 김하늘(24·비씨 카드)을 비롯해 김자영(21·넵스), 양재윤(20·LIG손해보험), 양수진(21·넵스), 이정민(20·KT), 이미립(22·하나금융), 정희원

(21·핀), 김혜윤(23·비씨카드), 장하나(20·KT), 이예정(21·S-OIL), 윤슬아(26), 정혜진(25·우리투자증권)까지 올 시즌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출전한다.

올해 우승자 중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포함해 일부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이번 대회는 이틀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되며 일부 저정 홀에서는 니어리스트, 롱리스트 등 이벤트를 경기 중간에 넣어 출전선수와 골프팬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를 선사한다.

중형자동차 '푸조508'은 지정홀인 15번홀

(파3)에서 최초 흙인원을 기록한 선수에게 제공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건설업체(주)한양, 파인비치골프링크스, SBS골프가 공동 주최한다.

SBS골프는 24일과 25일 오후1시부터 TV,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생중계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연합뉴스



男 하키 대표팀, 아르헨티나行

챔피언스챌린지 우승 도전

한국 남자 하키 대표팀이 세계챔피언스챌린지대회 우승 사냥에 나선다.

김운동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4일(이하 한국시각)부터 9일간 열리는 챔피언스챌린지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0일 오후 결전지 아르헨티나 카迩스로 떠난다.

챔피언스챌린지대회는 세계 8강만 출전 자격을 얻는 챔피언스트로피보다 한 단계 낮은 국제 하기 대회다.

지난해까지 트로피대회에 출전했던 한국은 올림픽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8위에 그쳐 챔피언스트로피로 출전 자격을 상실했다.

챔피언스트로피 대회는 전년 대회에서 5

위 안에 드는 팀과 올림픽 상위 성적 팀, 국제 하기연맹 후원국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내 공 받아라

20일(한국시각) 미국 실루엣에서 열린 미프로농구 NBA 살롯 밍캐츠와 밀워키 벅스의 경기에서 실루엣의 캠비·워커(원쪽)가 밀워키의 수비를 피해 고공패스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언론 "계약연장 협상 시작"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하는 손흥민(20)의 소속팀 함부르크SV가 '손흥민 불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20일(한국시각) 카를 에드gar 아르흐 함부르크 회장과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함부르크와 손흥민 측의 협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20일 보도했다.

손흥민은 2012-2013 분데스리가에서 6골을 터뜨리며 득점 순위 7위에 올라 있다.

특히 지난 18일 마이츠와의 경기에서 후반 18분 0-0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승골을 기록, 팀의 해결사로서 또 한 번 빛났다.

2010-2011 시즌에는 3골, 지난 시즌에는 5골을 남겼던 손흥민은 한 시즌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을 기록해 넘어섰다.

이번 활약 덕분에 임글랜드의 리버풀과

아스널 등 유럽의 '빅클럽'들이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함부르크는 2014년까지인 손흥민과의 계약을 연장하려 힘을 쏟고 있다.

아르흐 회장은 "손흥민을 팀에 오래 머무르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흥민이 함부르크를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본다"면서 "함부르크에 남는다면 손흥민의 발전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크 아르네센 단장도 "손흥민 같은 선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할 일"이라면서 "이런 짚은 선수는 1천200만 유로(약 166억 원)에도 내줄 수 없다"며 손흥민을 잡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손흥민은 "에이전트, 아버지와 상의 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활약 덕분에 임글랜드의 리버풀과

아스널 등 유럽의 '빅클럽'들이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함부르크는 2014년까지인 손흥민과의 계약을 연장하려 힘을 쏟고 있다.

김운동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4일(이하 한국시각)부터 9일간 열리는 챔피언스챌린지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0일 오후 결전지 아르헨티나 카迩스로 떠난다.

챔피언스챌린지대회는 세계 8강만 출전 자격을 얻는 챔피언스트로피보다 한 단계 낮은 국제 하기 대회다.

지난해까지 트로피대회에 출전했던 한국은 올림픽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8

위에 그쳐 챔피언스트로피로 출전 자격을 상실했다.

챔피언스트로피 대회는 전년 대회에서 5

위 안에 드는 팀과 올림픽 상위 성적 팀, 국제 하기연맹 후원국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광주수도사업회 12월 9일(일)

▲광주수도사업회 12월